

전남도, 1조5천억 규모 ESS 정부 입찰 전량 확보

(에너지저장장치)

523MW 규모 7개 사업...내년 말까지 설비구축 재에너지 출력이 원활하게 일자리

전남도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거래소가 진행한 2025년 제1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경쟁 입찰에서 전남이 육지부 전체 입찰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은 2023년 제주에서 처음 추진된 이후 육지 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봄·가을을 중심으로 내륙지역에서도 전력계통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가 발생함에 따라 ESS 추가 도입이 추진됐다.

전남이 확보한 낙찰 물량은 총 523MW 규모다. 영광, 무안, 진도, 고흥, 영광, 신안 등 6개 시·군에서 7개 민간 컨소시엄이 모두 선정됐다. 선정 사업자들은 6개월 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해 내년 말까지 설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523MW는 1시간에 523MWh의 전력을 ESS에 저장·공급할 수 있는 설비용량이다. 사업비는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SS 정부 입찰 낙찰사업자는 한전 변전소에 연결하는 ESS를 구축해 전력거래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전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에 공급하게 된다.

입찰 조건에 따라 6시간 동안 저장·공급이 가능해야 하며 이에 따른 ESS의 저장장치(배터리) 규모는 3천138MWh다. 이는 전남 가구당 일평균 전력소비량(7kWh)을 기준으로 약 45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번 ESS 입찰 확보로 전남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원활 측면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SS 제조 및 건설 분야의 9천300여개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도내 재생에너지 설비제작 및 시공 업체 등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향후 정부의 전남 RE100 산업단지 및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조성하고 연계해 지역 내 ESS 산업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ESS 정부입찰 시장 전남도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정부가 ESS를 호남권에 우선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면서 이번 입찰이 후속 조치로 이어졌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도·시·군 합동으로 '계통 안정 ESS 지원단'을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도내 19개 사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 등을 논의한 뒤 긍정적인 전남도 의견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했다.

2027년까지 ESS 신규 입찰물량이 이번 입찰물량의 3배를 넘는 1.6GW까지 예정됨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상시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부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행정적인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현규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이 국가 전력망 혁신 및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축"이라며 "도내 대규모 ESS의 획기적인 도입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및 첨단 기업 유치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를 보았다는 이유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9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절반 이상이 비당원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다.

청원인인 광주시장의 의견 청취와 자료 검토, 피청원인인 시의원들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당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필요시 징계 대상자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징계안건 심사 7일 전까지는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시장의 명확한 당론 없이 각 의원 자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었던 만큼 '해당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예결위원 전원이 자진 사퇴한 점을 들어 경징계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6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2025 세계양공연맹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회의'가 열려 관광·숙박·자원봉사 등 각 분야별 담당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양공연맹 총회는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 제공)

내달 1-3일 광주서 '세계양공연맹 총회'

양궁대회 연계 160여회원국 대표단 참가

'2025 세계양공연맹 총회'가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연계해 오는 9월1-3일 광주에서 열린다.

세계양공연맹(WA) 총회는 회원국 100여개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국제스포츠회의로 규정 개정 및 차기 집행부 선출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광주시는 6일 오후 시청에서 2025 세계양공연맹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열어 관광·숙박·자원봉사 등 분야별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 세계양궁대회지원단, 광주관광공사, 광주자원봉사센터, 광주시립창

극단, 호남대학교 RISE사업단,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금호고속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세계양공연맹 총회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회를 광주가 국제 스포츠 행정 중심지이자 마이스(MICE)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로 하고 지역의 역량을 모아 수준 높은 국제행사로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력기관들은 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나눠 총회 준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호텔 업계는 다양한 국적과 종교를 고려한 식음·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주자원봉사센터

와 호남대학교는 회의장 운영과 참가자 편의 지원을 맡는다.

광주시립창극단은 전통 공연으로 지역문화를 소개하고, 광주관광공사는 회의 시설 제공과 운영을 총괄한다.

광주시는 유관기관과 실질적인 준비사항을 지속 점검하는 등 총회 개최일까지 빈틈없는 준비를 이어간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세계양공연맹 총회는 세계 양궁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고 수준의 국제회의이자 광주를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며 "도시전체가 협력하는 체계를 바탕으로 참가자 만족도를 높이고 광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市의원 10명 11일 윤리심판원 첫 심의

예결위 논란 후폭풍...징계 여부 '촉각'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가 오는 11일 윤리심판원 첫 심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장 윤리심판원은 11일 회의를 소집해 예결위 구성 과정에서 '해당 행위' 논란에 휘말린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한다.

징계 대상자는 신수정·채은지·정무창·강수훈·김나윤·박미정·서민석·안광환·이귀순·정다은 의원 등 10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예결위원장에 무소속 심창욱 의원, 부위원장에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을 합의를 추대한 과정에서 민주당 당론과 다른 행

보를 보았다는 이유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9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절반 이상이 비당원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다.

청원인인 광주시장의 의견 청취와 자료 검토, 피청원인인 시의원들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당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필요시 징계 대상자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징계안건 심사 7일 전까지는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시장의 명확한 당론 없이 각 의원 자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었던 만큼 '해당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예결위원 전원이 자진 사퇴한 점을 들어 경징계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시, 오늘부터 '사회조사' 실시

21일까지 '삶 만족도' 등 조사

광주시는 6일 "시민 삶의 질과 사회적 관심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5년 광주사회조사'를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시민 생활 실태와 인식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정책 개발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광주지역 표본으로 선정된 4천905가구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조사원은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응답자 부재 또는 요청

시에는 자기기입식 방식으로도 응답할 수 있다.

자기기입식 조사는 응답자가 스스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생활 보호와 응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조사 항목은 ▲삶의 만족도 ▲소득·소비·자산 ▲주거와 교통 ▲노동 ▲교육 ▲문화와 여가 ▲복지 ▲자치단체 특성 등 8개 부문 총 64개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사회조사는 시민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수집해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1) 임동5거리 8층 135평 은행감각가 6억1,600급매가4억1,000(3,000세대아파트 대로변)

2) 용자금(14억)만 안고 그냥 이전해가세요 신수동5거리 4층건물 대지150평 연건평380평 주차15대

3) 대인광장로타리 상업지 188평을 급매합니다 평당1200만원(조정됨)입니다

4) 운암자이(구주공)등5,000여세대 대로변코너 대지202평 5층622평 승강기1,주차11 급매45억

5) 드라이브루 마케팅용빌딩 남부권 관문, 아파트1만세대 생활권 6차선대로변 대지606평 지하1층 지상3층 승강기1, 에스컬레이터 각층, 주차92대 가능 급매90억(용자75억) 현금15억 인수 가능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시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생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임대, 임대, A/S

T.375-5880